

피부에 어울림이 좋은 곱슬 주름

면축(crepe, 緋縮)은 서커와 더불어 우리 나라 여름철에 많이 쓰이는 평직의 옷감이다.

1. 강연사(high twist yarn)

꼬임을 많이 준 실을 말하고, 1m당 약 800회 이상(보통 1,000~3,000회) 꼰 실을 말한다. 거의 모든 섬유 원료에 응용된다. 강연사의 큰 목적은 직물 표면에 잔주름을 만드는 것이며, 크레이프(crepe), 조오젯(georgette) 등에 사용된다. 또한 꼬임이 많으면 실이 탄탄하고 함기량이 감소되어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 옷감(폴라 등)에 사용되며,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 밖에 레이온이나 합성섬유 등의 광택을 없애는 작용을 하고, 직물에 중량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한편, 고요한 호수라든가 흐르는 강물의 수면에 일어나는 잔물결에 청량감을 느낀다. 그러한 잔물결과 같은 요철감을 가로 줄무늬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어 서커(sear sucker)라고 한다. 서커 주름이라 함은 시어 서커의 물결상의 요철 또는 그것에 유사한 주름이다. 시어 서커는 물결을 나타내는 경사와 평평한 바닥을 만드는 경사의 2 종류와 위사를 사용하여 짠 것이다. 제직에 의하지 않고 서커 주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리플(ripple) 가공과 엠보스(emboss)가공 등이 있다. 리플은 약품을 프린트하여 그곳을 수축시키고 프

린트하지 않은 곳의 원단에 주름을 만든다. 따라서 줄무늬 이외에 물방울이 라든가 꽃의 실루엣 등 자유로운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리플은 면직물에 많이 표현하고 있다.

엠보스는 서커 주름을 조각한 롤러로써 원단을 압형하여 주름을 부여한다. 면인 경우에는 세탁에 의하여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지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있다. 폴리에스터라든가 폴리에스터 혼방인 경우에는 폴리에스터의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주름을 고정한다. 모두 비전문가적인 눈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시어 서커는 잔물결의 개소가 평평한 곳보다는 치밀하게 보인다.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리플과 엠보스이다. 주름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끈적거리는 달라붙음이 없고 통기성도 있다. 흡수된 땀은 요철에 의하여 곧바로 방산되기 때문에 여름철 피부에 어울림이 좋다. 세탁하여 노아이론을 입을 수 있는 점도 즐겁다. 그러나 다림질하면 곱슬주름이 소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시어 서커(sear sucker)

경사 방향으로 수축된 부분이 있는 평직의 면직물로서 경사에 장력, 굽기나 꼬임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배열하여 제직, 가공하면 수축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 경사 방향으로 오그라든 줄무늬가 나타난다.

폴리에스터 섬유와 면혼방 또는 기타 화학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며 사염의 줄무늬 또는 체크무늬가 많다. 세탁이 편리하고 다림질할 필요가 없어 여름용 드레스, 슈트, 파자마, 아동복, 커튼 등에 사용된다.

3. 리플(ripple)

잔물결 모양인 요철이 있는 면 또는 레이온 직물을 말하며, 리플렛(ripple)이라고도 한다. 면일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 액으로 팽윤, 수축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화학섬유일 경우에는 가열, 수축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리플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다. 보통 격자무늬나 프린트지 등으로 하는데, 가볍고 세탁하기가 좋은 실용적인 옷감으로서, 여름용 드레스, 블라우스, 파자마, 속옷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여름에 흘리는 땀은 자신도 끈적끈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자신은 물론이고 보고 있는 상대방도 상쾌하고 시원스레 보이면서 피부환경에는 살갗에 달라 붙지 않는 것이 여름철 옷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쾌한 감을 가지는 옷감은 어느 정도 딱딱하고 요철이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잔털도 없다. 예를 들면 한더위에 입는 블랙포털 옷감으로 양모로 만든 조직은 이지직의 조오젯 싱글이 있다. 이러한 옷감은 이지직의 직물 조직에 의하여 줄어듦이 생기고, 강연사를 사용하여 곱슬주름이 발현되고 있다. 줄어듦, 곱슬주름은 천의 표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철이다. 역시 실과 실 사이가 성글고 비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쾌한 드라이감과 통기성을 좋게 한다. 얇게 느껴지지 않고 볼륨감이 있으며 가볍다. 드레이프의 아름다움과 시원시원한 실루엣, 깊이 있는 색상 등의 옷맵시가 좋게 나타

난다. 캐주얼한 안목이라면 시어 서커로 만든 셔츠, 여름용 드레스, 재킷 등이 있다. 시어 서커는 물결치는 듯한 무늬를 갖는 면직물이다. 이러한 서커 주름을 모방한 옷감으로 리플이나 엠보스 등이 있다. 면 크레이프 등은 곱슬 주름을 가지고 있어 상쾌하다. 경피케나 위피케는 병행하여 이어지는 무수한 이랑을 가지고 있다. 모두 살갓과 떨어짐이 좋다. 상쾌하게 달라붙는 피부 감촉, 중량감이 있어 정감이 간다.

4. 드레이프(drape)

시폰이나 실크, 레이스처럼 하늘하늘하거나 부드러운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옷감이 자중으로 수하되면서 자연스런 곡면을 만든다. 이러한 곡면 주름들이 만드는 독특한 느낌, 즉 드레이프를 즐기기 위해 원단의 일부가 늘어지는 등의 특별한 디자인을 하기도 한다.

5. 실루엣(silhouette)

창문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또는 불빛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말하는데, 18세기 무렵에는 검은 종이를 가위로 잘라 얇은 색지 위에 붙인 옆모습의 초상화를 일컬었다. 이 이름의 기원은 당시의 프랑스 재무장관이며, 인색하기로 유명한 A.De.Silhouette (1709~1767) 이 이런 초상화를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것은 모든 사물의 외곽선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현재는 인물 또는 사물의 외관을 대충 나타낸 그림을 가리키게 되었다. 특히 복식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복장의 세부적인 부분의 디

자인을 제외한 윤곽 또는 외형을 말한다.

흰색 또는 색상을 뺀 듯한 무지감각의 천에 물결 모양의 기복을 만들어 그것을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옷감을 자주 본다. 천에 모양상태의 기복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리플가공, 엠축가공, 엠보스가공(형압가공), 시어 서커의 제작방법, 홀치기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화제의 중심적인 존재는 엠축과 홀치기이다. 엠축가공과 리플가공은 보기에 거의 유사하고, 그 차이라고 하면 엠축가공은 견직물이라든가 양모직물에 사용되는데, 양모에 있어서는 개버딘이나 트월 등의 중간 정도의 옷감에 사용되고 있다.

리플가공은 면직물 옷감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면축에 나타내는 것도 있다. 엠축가공은 견 또는 양모옷감에 질산칼슘용액을 붓으로 그려 넣거나 날염 풀에 섞어서 인날(형판을 사용하여 날염 풀을 천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것)한다든가 또는 용액 속에 침지하는 방법 등에 의해 질산칼슘 용액과 접촉하는 부분의 천의 표면이 줄어들어 기복이 생긴다.

엠축은 견포의 경우 견섬유를 손상시키지 않고 줄여서 탄성이 있는 신축효과를 부여한다. 엠축가공을 시행한 견포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방법이다.

리플가공은 가성소다 용액을 이용하여 행하는 기법이다. 어떠한 옷감에도 다림질은 필요하지 않다.

크레이프라고 하여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패셔너블한 여자의 여름철 피부에 상쾌한 면축(crepe)을 떠올리는 것이 중장년층이다. 크레이프는 천의 면에 곱슬 주름이 있다. 그러한 주름은 상당히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기복이 현저하고 상쾌함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이다. 크레이프 드신(crepe de chine, 프랑스어로 중국의 크레이프라는 의미), 플랫 크레이프(flat crepe), 팰리스 크레이프(palace crepe), 요루(yoryu), 면축, 조오젯 크레이프(georgette crepe) 등은 모두 면축의 일종이다. 면 치리멘(chirimen), 지지미와 견 치리멘과는 구분하고 있다. 치리멘의 주름을 곱슬 주름이라고 한다. 곱슬 주름은 강연사의 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주름이다. 제직사를 강하게 꼬면 꼬여진 실은 그 꼬임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직물의 경위사로 제직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되돌아가려는 힘에 의해 직물 전체에 주름이 생긴다. 곱슬 주름에 의하여 천의 면에 음영이 생기고 피부 촉감은 상쾌하게 되어 탄력성이 생긴다. 드신은 경사를 생사로 하고 위사에 S꼬임의 강연사 2올과 Z꼬임의 강연사 2올을 교호로 위입하여 만든 평직의 옷감이다. 작은 곱슬 주름을 전면에 많이 가지고 있다. 드신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플랫 크레이프에 유사하나 더욱 평평한 크레이프이다.

요루(yoryu) 측면은 가로 방향으로 줄기상의 곱슬 주름을 가지고 있다. 드신 등의 곱슬 주름에는 방향성을 느낄 수 없으나 요루 측면에는 그것이 있다. 요루 측면의 곱슬 주름이라고 부른다. 요루 측면은 경사를 생사로 하고 위사를 S연 또는 Z연의 강연사의 한 종류만을 사용하여 제직한 평직의 옷감이다. 반바지나 여름용 드레스에 친숙한 면 요루의 기원은 견의 요루 측면이다. 요루 측면 드레스는 고급스러운 감이 있다. 얇고, 가볍고 약간의 딱딱한 피부 촉감을 가지며, 작은 곱슬 주름의 성긴 조직으로 투과감이 있다. 광택도 없고 투명 효과도 얻어진다. 주름이 생기기 어렵다. 이것을 조오젯 크레이

프라고 한다. 조오젯 크레이프는 경위사에 공히 S연과 Z연의 강연사를 2올 교호로 위입한 평직물이다. 조오젯 크레이프는 이러한 실을 사용하여 경위축 면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은은한 표정의 조오젯 크레이프는 스카프, 솔로서도 애호되고 있다. 솔의 취급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이는 실이 가는 것 이외에 올이 성글기 때문에 잡아 당기기도 하고 강하게 비빈다든가 다림질을 하면 주름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곱슬 주름이 높은 요루 축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6. 솔(shawl)

장식과 방한 방진용으로 사용되는 여성용 어깨걸이를 말하며, 어원은 페르시아어의 샬(shal), 프랑스어의 샬르(chale)이다. 초기의 것은 대형으로서 의복기본형의 하나로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리스의 히마티온(himation)이나 인도의 사리(sari, saree) 등도 그 일종이다. 원래 어깨걸이로서 도입하였고, 19세기에는 마차로 외출할 때 남성의 여행용 오염방지 덮개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고급 견직의 수제품이어서 고가였으므로 상류 계급에서만 사용하였다. 19세기 중반에 기계직의 솔이 생산되면서 일반화되어 솔 전성기가 되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 여러 모양이 있으며, 재료는 견, 모, 레이스, 털실, 모피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사용법도 여러 가지여서 베일같이 머리에 쓰기도 하고 벨트같이 허리에 두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페티코트처럼 하체를 덮어 주기도 한다. 스카프(scarf)나 스톨(stole, 장식 또는 방한 목적으로 어깨에 걸치거나 목에 두르는 의류)도 솔에서 파

생된 소형의 솔이다.

견조오젯 크레이프는 경사와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은 S연과 Z연 각각 2올씩 교호로 배열하고 제직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작은 요철을 규칙적으로 천의 전면에 일으켜서 상쾌한 피부촉감을 부여한다. 조오젯 크레이프와 시폰은 유사하다. 조오젯 크레이프의 딱딱한 감은 세리신을 남기고 있는 견사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조오젯은 강연사의 제직사에 의한 것이고, 시폰은 제직사에 세리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오젯도 시폰도 평직으로 얇고, 가볍고, 투과감이 있는 옷감이다. 일반적으로 가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폰이 얇고 가볍다. 조오젯 크레이프를 가볍게 경위사 방향으로 잡아 늘려보면 신축감이 있다. 스트레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름이 생기기 어렵다. 이것은 강연사를 사용한 원단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특징이다. 스트레치성이 있는 원단이라고 하면 폴리우레탄 탄성섬유를 사용한 제직사를 생각하지만, 강연사를 사용하여 스트레치성을 얻는 것도 있다. 시폰에는 강연사를 사용한 것도 있다. 이것을 시폰 크레이프(chiffon crepe)라고도 부르고 원래의 시폰과는 구별하기도 한다. 세리신을 남기고 있는 점은 같기 때문에 일괄하여 시폰이라고 부른다. 조오젯 크레이프도 시폰도 거칠게 다루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